

원 동

— 주막집과 과객이 있었던 풍경

강 승 현

(제주 4·3연구소 연구원)

원동과 4·3

▲ 주막 찾아 길손이 들던 산간마을, 원동

4·3은 제주의 마을공동체를 철저히 파괴했다. 그래서 중산간 지역에는 마을의 흔적만 남은 곳이 여럿 있다. 서부산업도로를 따라 가다 제주 면허시험장을 조금 지나면 길가에 '원동'이라는 입간판이 보인다. 조그마한 내(乾川)를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상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와 상가리 두 마을에 속한 이 원동은 4·3으로 없어져버린 마을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동의 4·3 유족들은 지난 1992년, 4·3 당시 마을에서 학살된 조상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진혼굿을 벌여 제주 사회에 4·3의 참상을 새롭게 환기시켜주기도 했었다. 당시 굿판에 참석했던 유족들은 고향땅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 날의 처절함으로 해서 찾지 않다가 40여 년만인 이 날에야 한데 모인 것이었다. 마을터에서 행해진 굿판에서, 이제는 당시 희생된 부모보다 더 나이가 들어버린 유족들은 잡목으로 무성한 집터를



▲ 원지 모습.

바라보며 '이 땅이 우리 마을이었던가' 하면서 통곡했었다.

원동의 들머리에는 한 재일동포가 어머니의 고향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원지(院址)'라는 표석이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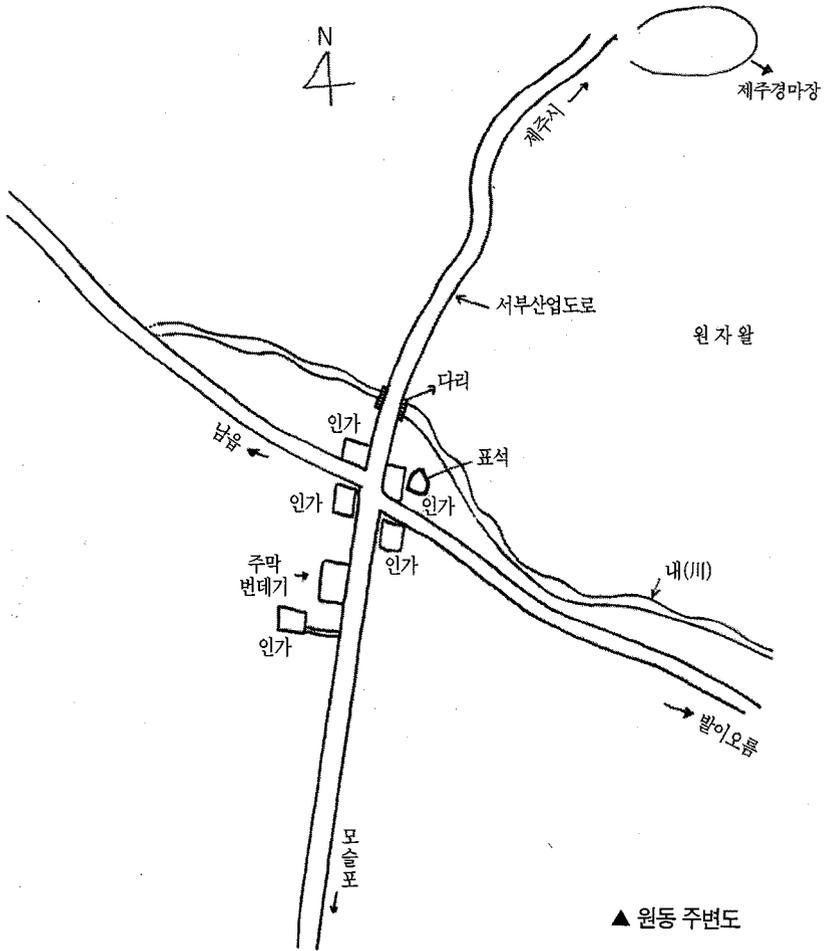
〔院마을 옛터〕

이곳은 太宗十六年에 濟州牧 大靜縣 正義縣 三邑이 鼎立될 때 院이란 마을이 있었던 곳으로 당시 出張하는 官吏들에게 宿食의 便宜를 주기 위하여 宿食所를 두게 하였고, 이에 따라 五·六채의 人家가 形成되어 農耕과 牧畜業에 從事하던 地域民들이 이곳을 지날 때에는 잠시 休息을 取하고 渴症을 풀었다.

이 마을은 八·一五 解放 때까지 남아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겐 '沙漠의 오아시스' 이기도 했으나 四·三 以後 사라지고 해가 바뀔수록 도민의 생각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이 안타까워 人家가 있던 이 마을에 精誠을 새겨 이 돌을 세운다.

一九九〇年 八月 十四日

金和淑



제주에 있던 두 곳의 원 가운데 동쪽에 있는 원은 '동원, 서쪽은 '서원'으로 불렸다. 동원은 조천 지경의 새미오름과 피꼬리오름 사이 한길가에 있었는데, 지금도 원동·원터 등의 지명이 남아 있다. 서원은 바로 애월읍의 원동이다.

원동의 역사는 꽤 오래다. 조선 시대 초기 제주목과 대정현을 잇는 옷한길(지금의 서부산업도로) 중간 참에 원이 설치되고, 주민들이 모여 살

게 되면서 원동이 형성됐다. 제주목사가 대정 현청을 순시할 때에도 원동에서 쉬어 갔다 하는데, 제주목을 출발해서 여덟 참(1참은 2km)을 걸으면 배가 출출하고 갈증이 날 쯤해서 당도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원동이었다.

원동의 주막은 해방 후에도 없어지지 않아 제주와 대정을 왕래하던 사람들이 간단히 술과 요기를 하면서 쉴 수 있었다. 4·3 직전 원동에는 16가구에 60여 명의 주민들이 모밀(메밀), 산디(밭벼), 피, 콩, 감자, 고구마 등을 거친 들밭에 부치고, 소를 키우며 내 것 네 것 없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가옥 수가……? 그곳이 지금은 읍이지만 그 때는 면이라났는데, 원동도 애월면 소길리 지경의 원동이 있고, 상가 지경의 원동이 있지. 마을터 중간참에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서 모슬포 쪽으로는 상가, 제주시 쪽으로는 소길리 원동 지경이라. 상가 지경 호수가 다섯 호, 하천 바로 옆에 한 호 있었고, 붙어서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주막집이 옛날엔 여관 겸 말하자면 하숙 겸 하는 집이 있었어. 길 북쪽으로 오면 자리 구석이라는 별명을 가진 길모퉁이 집이 두 혼가 세 호 있었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더덕(상가) 지경을 말하는 거라. 소길 지경으로 오면은 호수가 내 아랫집에서부터 안거리(안채), 밖거리(바깥채)를 한 가구로 하게 되면은 열한 호 있어났지.

(고남보, 남, 67세, 제주시)

일제 말기 이 한반도 어느 구석 공출에 시달리지 않은 마을이 있었으랴만 원동은 다른 곳과 달리 고사리 공출 외에는 공출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귀 등지에서 공출을 피해 이주해 오는 가구도 있었다. 워낙 궁벽한 산간마을이라 애월면에서도 자신들에게 할당된 공출량을 원동에는 차마 부과하지 못하고 다른 마을에서 채웠던 것이리라.

우리 고향은 원래 애월면 학원동 비학동산인데, 일제 시대 공출이 너무 심

하니까 산간 부락으로 이사를 한 거라. 우리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거긴(원동) 공출이 없었답디다. 곡식도 산간마을이라 얼마 없었고 하니.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살다가 4·3 때 다 죽은 거라. (고남보)

▲ 1948년 11월 13일 (음력 10월 13일)

원동은 농토가 척박하고 경지 면적도 얼마 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은 어려웠다. 그러나 평화스럽고 조용한 마을이었다. 해방이 되어 온 세상이 들썩이고 4·3이 발발해도, 산간에 위치한 마을인지라 원동의 분위기는 1948년 가을까지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다.

인민위원회?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라. 그저 해가 뜨면 밭으로 텅굴어 가고, 어두워지면 집으로 기어 들어오고 다들 그렇게 살았지. 사태 나기 전에는 순경이나 서북청년단이나 산사람이나 전혀 와 본 적이 없었어. 5·10선거? 선거가 뭣인지 우리야 알 수가 있다. 시집 와서 돈 벌러 일본 가서 대여섯 해 살다가 돌아와 얼마 있으니 그 위험한 시국을 만났지. 그저 일들이나 할 줄 알지 아무 것도 몰라. (장병기, 여, 77세, 꺾지리)

1948년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제주도 내 중산간 마을은 군경 토벌대에 의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소위 '집단학살 - 방화 - 소개'로 이어지는 군경의 토벌작전으로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이 초토화되었던 것이다.

전도적으로 중산간 마을에 소개령이 내려진 것은 1948년 11월 15일을 즈음해서였다. 중산간 마을이 무장대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소개령을 내렸지만, 토벌대는 마을 사람들에게 미리 피하도록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최근에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마을에는 소개령이 미리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산간 마을에는 어

그날 갑자기 토벌대가 들이닥쳐 마을을 불지르고 주민들을 학살했다.

1948년 11월 13일 새벽 2시. 조천면 교래리를 포위한 토벌대는 집집마다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군인들은 발포하기 시작했다. 초도화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드넓은 교래 벌판을 울려댔다. 1백여 가호가 평화로이 살던 교래리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이 날 토벌대에 의해 폐허가 된 마을은 교래리만이 아니었다. 조천면 와홀리의 수기동이 폐허가 됐고, 서귀포시 토평동, 애월읍 하가리에 이어 소길리 원동이 그렇게 됐다.

11월 12일 자정 무렵, 제주읍의 외도 지서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 군인들이 원동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 지역 지리를 잘 몰랐던 토벌대는 구엄리 주민 4씨를 길라잡이로 대동했다. 새벽 1시쯤 토벌대는 애월읍 하가리에 도착했다. 곧 대부분의 주민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마을집에 1개 중대 가량 되는 병력이 불을 지르고,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뛰쳐나온 주민들을 속칭 '육시우영'으로 끌고 가 광란적인 학살극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날,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었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이었던 고모가 군인들에게 이 잔치는 돼지도 잡고 술도 장만해서 무장대를 대접한 것이라 거짓으로 밀고하는 바람에 토벌대는 이 마을을 적성 지역으로 간주하여 마을을 불지르고 주민 36명을 학살했던 것이다.

그날 누님 한 분도 돌아가셨어요. 우리집이 잔치를 벌였던 집 바로 옆집이었는데 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치니까 일어나기는 했는데, 누님이 옷을 입으면서 일어나 나오는 것을 군인들이 육시우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도 데려다가 무조건 죽이더군요.

(고두현, 남, 68세, 경기도 안양시)

토벌대는 온 마을이 불에 타 대낮같이 밝은 가운데 기관총을 걸어놓고

육시우영을 매운 주민들을 사살한 다음 대검으로 확인 학살까지 하는 잔혹성을 보였다. 그후 토벌대는 미명을 해치고 원동을 향했다. 하가리 육시우영 학살에 이어 원동에서도 새벽 미명과 함께 군인들의 요란한 발자욱 소리가 이어진다.

갑자기 뉘 자는 데 네시 경에 후렛쉬 불을 들고 나오시오, 나오시오, 따라오시오 해서 공회당으로 끌고가더라고. 공회당으로 처음부터 끌고간 게 아니고 처음엔 맨 윗동네, 소길 지경 마지막 웃동네에 끌어다 놓고, 거기서 다 묶었는데 시간이 한 9시쯤 되실거라. 너희들은 죄가 없는 줄 안다. 산공비 있는 데를 달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산공비 있는 데를 알 수가 있나.

그러니 우리는 모릅니다 하니까,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거라. 손을 뒤로 돌려서 줄줄이 뒷걸박하여 놓고, 소길리쪽 원동 부락 뒤에 웃머들, 알머들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곳을 뺑뺑 돌아다녀도 공비 있는 데를 알 수가 있나. 그냥 헛삼아 돌아다니다가 돌아온 거지. 그러다 낮이 넘자 공회당에 다 앉혀 놓고 다시 잘 묶는데, 나만 딱 앞으로 묶더라고. 앞으로 묶으면서 끌리지 말라고 나보고 시켜요.

그 날은 음력 10월 13일이었고, 이젠 해도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일곱시쯤 됐을 거라. 군인이 9연대에 무전을 치는 것 같더라고. 무전으로 애월면 소길리 원동이란 곳에 부락민 다 잡아 놔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그런 내용이었겠지. 묶어서 딱 둘러앉혀 놓고 뺑 둘러 있는 군인들이 하는 소리가 뭐, 남자는 총으로 땅 쏘으면 옆어져 죽고, 여자는 뒤로 자빠져 죽는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줘요. 무슨 강의하듯이. 열 사람 분 총알로 쏘면 열 두 사람까지 죽는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어린 얘기는 죽이면 양양 울며 죽고, 어른은 쏘면 객 소리도 못 하고 그냥 가버린다고, 그런 소리도 하고. 잠시 후 애월로 난 길로 해서 차가 쪽 올라옵니다. 그러자 한 군인이 너희들은 이제부터 10분 내로 죽어지는 줄 알라 이렇게 공표를 해요. 날이 다 어두워 달이 휘환데. 그 말에 총 맞아 죽을 생각은 없을 거 아니오. 나는 이미 어두운 때니까 끈을 끌르고

묶여 있는 채만 하고 있다가 연대본부에서 차가 도착하자 경례 딱딱 붙이며 악수를 하는 틈을 타서 거기를 빠져나가, 주막집 울타리가 높아 조짚 위로 올라 담을 넘어갔는데 밖에 또 군인 하나가 있어. 한 놈 똬다, 똬다, 뛰지 마라 안 죽인다, 뛰면 쏜다, 외치는 거라. 그러다고 서겠어요? 그냥 무조건 뛰어서 가시밭 속에 가만히 숨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따라 와서 너희들 안 죽일테니까 나와라, 나와라 해도 안 나왔어요. 한 시간쯤 있다 훑어보니까 목도질 소리가 나. 영차 영차 하는 거. 목도질하면서 나가는 거 나중에 보니까 식량, 이불을 이어다가 다 불태워버리는 거라. 좀 있으니 총소리가 와다당 와다당 …… 총소리가 딱 끊어진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왕왕왕 났지. 그러자 2 차로 총소리가 막 나고, 총소리가 스텝하니까 그 다음은 우는 소리가 몇 안 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총 갈기는 소리가 연달아 막 나요. 세 번까지 갈겨서 딱 멎으니까 조용하더라고. 그 때 공회당이며 다 불 붙어버렸지. 동동네, 서동네는 안 붙이고. 사람들은 주막집에서 죽인 게 아니라 주막 알넉집에서 죽였어. 공회당 옆에. 휘발유까지 뿌려서 죽인 시체들은, 그 때 집 밖에 안 나왔던 사람들, 나오라고 하여도 나 눈 어두워 못 나갑니다 했던 나이든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 그 사람들이 뒷날 와보니 자기 손주, 며느리, 가족들 다 죽어 있는 거 아니? 어땡어땡 시체라도 찾아서 개 묻듯이라도 물어줘야 했으니, 군인들이 산으로 가든 해변으로 가든지 하라고 해도 조금만 참아주시라고 했지.

나는 그 날 새벽에 총 쏘는 소리 듣고서 가시숲 속에서 나와서 뒷머홀로 막 올라갔지. 한참 올라가다 나무 밑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날이 새도 무서워서 내려오지 못해서. 군인들은 사람 죽여두고 바로 간 거 같아. 당시 살아난 사람 중 강공팔이라고 있었는데, 그 분은 미처 군인들이 묶이지 못한 거라. 나 룯짚(벼짚)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고. 양창석도 그 자리에서 총 맞아도 죽은 채 해서 살아나고. 강창육인가 강창봉인가 모르겠는데, 총을 옆구리에 맞아도 살아나서 꺾지에 갔다고 하더군. 군인들은 사람들 다 죽인 다음 살아 있는 사람에게 너희들은 죽이지 않을 테니까, 삼일 내에 다 불붙일테니 산으로 가든지, 해변으로 가든지 알아서 하라 하니, 다들 해변으로 내려와 버린 거지. 산으로

가려고 해도 몰라서 못가. 공비들한테 붙어야 살아질 건지, 아래쪽에 붙어야 살아질 건지 그것도 모르고. 다만 당장 갈 곳이라는 것은 해변 내려가는 것뿐이라. 산으로 가면 갈 곳도 모르지, 먹을 것도 없지, 해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난 그때 밀림지대 속으로 들어가서 삼일 지나 마을로 내려오긴 했는데 들어오진 못했지. 군인들이 갔는지 그냥 있는지 모르니까. 부락 위에서 높은 지형에 있는 나무에 올라서 보니 또 총소리가 바바박 허게 나. 나를 발견하고 쏘는 줄 알아서 또 밀림지대로 달아났지. 뒷날, 그러니까 나홀 지나서 내려오니까 할머니가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느냐고 욕을 해. 군인들이 와서 산으로 가버리든지, 해변으로 가버리든지 하며 내일 와서 불 붙이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삼일만 봐 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시체는 찾아야 할 것 아니냐고.

옷한질 원동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라. 모슬포에서 도립병원으로 입원하려 이불을 지고 가던 환자, 또 아래 있어야 살 수 있을지, 위에 있어야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피난 온 사람도 많이 죽어서. 듣기에는 86명이라 들은 거 닭기도 허고. 우리 원동 주민들이 많이 죽기도 했지만, 탄 마을 사람도 많이 죽어서.

(고남보)

또 이 날 학살 현장에서 총에 맞았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장병기 할머니는 이렇게 전한다.

그날 아침엔 조반해 먹고 밭에라도 가보려고 생각했는데, 아침이 곧 밝아올 때 9원대들이 철모에다가 하얀 띠들을 딱딱 두르고, 총을 어깨에 메고 날아들었어. 더럭(상·하가리)에서 사람들 다 죽여 놓고 날아들은 거지. 더럭에서도 많이 죽었다고 해. 차로 몇 차나 실어왔는지 한 백여 명은 되는 것 같았어. 오늘은 얘기나 데리고 밭에 가서 모밀(메밀)이나 배어야지 생각하면서 조반을 준비하는데 '총이어' 하는 소리가 나서 얘기 안은 채 밖에 나가보니 다 포위됐어. 어디 숨을 수도 없었지. 어떻게 할지 몰라 허둥대면서 조를 다듬고 있는데 군인 두 명이 질각질각 오는 소리가 나더니, '지금 뭐 하느냐, 빨리 어디 어디

로 가라' 막 재촉했어. 애기 업고 해서 가서 보니 옷집에 사람들이 다 결박당한 채로 포위되어 있어. 우리집도 세 형제가 한꺼번에 하루에 죽었지. 처음엔 죽어있진 않고 어디로 데려갈 듯 했어. 질문만 하고 보내주겠거니 생각했어. 저 물어 갈 때까지는 쏘아죽어있진 않았어. 저물어갈 때쯤 한 7시 경 되어가니까 아래서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던지 주막번데기에서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앉혀 놓고 총으로 와작작 와작작…….

강춘부(여, 67세, 서울)는 이 날 부모를 잃었다.

바로 여기가 마당도 되고 길도 되었어. 이 자리가 집터고……. 여기서 (주막번데기) 다 죽었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관총으로 쏘아 죽였지. 그 때 내가 17세야. 까망치마를 입고 있었지. 치마를 폭 뒤집어 쓰고 애기를 하나 업고 구석에 있으니까 군인이 와서 '너 여기 왜 앉아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중대장님이 아이들 밥해주라고 보내주었어' 대답하니, '너 여기 가만히 있어봐, 확인하러 갔다 온다' 하고 가버리길래 무서워서 애들을 데리고 저쪽(머흘곶) 가시밭 길로 막 도망을 쳤어. 가만히 숨어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돼지 태우는 냄새 같은 게 막 나는 거야. 사람을 죽여 놓고 불을 질러 버리니까 그랬던 거지. 다음날 내가 확인해 보았더니 배가 갈라져서 내장이 나온 사람, 팔 다리가……. 그 때 우리 어머니는 5개월 된 애기를 구덕에 뉘어 놓았는데 살점이 이만큼씩 찢겨나와 구덕 속에 막 들어가 있더라고. 제사가 시월 열이틀 날이니까 시월 열사흘에 그 일이 있었던 거지.

머흘곶에 숨어서 한 사나흘쯤 지냈어. 그러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거나 찾아 먹으려고 나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었지 뭐야. '어머니, 아버지도 다 죽고 난 어떻게 살아 가느냐'고 군인들한테 말하니, 군인이 하는 말이 '그럼 하귀로 내려가라'고 하대. 나는 막 땅바닥에 뒹굴면서 '차라리 몰살시켜달라, 어떻게 어린 동생들하고 살아 가느냐'고 울고불고 했었지. 군인들이 '누가 그렇게 죽었냐, 빨갱이들이 그랬냐'고 하는 거야. '당신네들이 그랬잖아' 하

니까, 그 군인들도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 마을에 가서 보니까 이마가 갈라진 사람, 배창자가 나와 죽은 사람, 다리가 부러진 사람 천지야. 엄청 많이 죽었어. 원부락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왔던 사람들도 애매하게 다 죽었지. 죽은 사람들이 60여 명은 되는 것 같아.

어머니, 아버지 시체를 찾아야 하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지. 사람 죽여 놓은 후에 기름 뿌려 놓고 불을 질러버렸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머리까지 다 타버려 가지고 알아보지 못했는데 손을 보니까 겨우 알 수 있더라고. 어머니가 어릴 때 방망이질 하다가 찢어서 몽푹해져버린 손을 보고 알아 보았지. 시체를 뒤집어 보니까 타다가 다 안탄 내복이 보이는데 이젠 영락 없는 엄마꺼야. 아버지는 가슴 하고, 허벅지에 총을 맞았더라고. 그때 생각이 선해. 그 일이 나기 직전에 엄마가 너 잘 해야 한다, 열일곱 살이라고 하지 말고 열두 살이나 열 살이라고 해라'고 하던 말이 생각나. 내가 그때 까망치마를 입고 애기를 업고 있었으니까 군인들이 나이를 잘 몰랐지. 결국은 찾아 가지고 물어야 하는데, 그 어린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집 대문을 열어 겨우 개판을 해 못었지.

군인들이 처음엔 산에서 왔다고, 산사람이라고 했어. 복선서 왔다고. 우리 산사람인지 군인인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군인으로 철모자에 흰띠를 두르고, 다들 총을 메고 있었어. 구두도 이만큼씩 한 것들을 신고. 칼도 찼는지……? 무서워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어. 복선서 왔다고 해도 복선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 우리같은 여자들이 알긴 뭘 알아. 나중에 보니까 9연대야. 말들 들어보면 서울말이었어.

이 날의 집단 학살로 30여 명의 주민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한 대정에서 제주시 병원으로 입원하러 가던 사람, 제주시로 가다가 원동에서 쉬고 있던 사람, 이웃 마을에서 소 꼴을 먹이러 올라왔다 잡혀 온 사람 해서 최소한 60여 명이 학살되고, 마을은 폐허가 됐다. 집단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거나 대를 잇기 위해서 살려주었다고 하는 열살 안팎의 어린아이들, 모두 합해서 30여

명 정도였다. 이들은 학살이 있는 사흘 후, 군인들이 다시 와서 소개하라는 재촉을 받자 꼭지, 고내, 하귀 등지로 내려가서 지금껏 발붙여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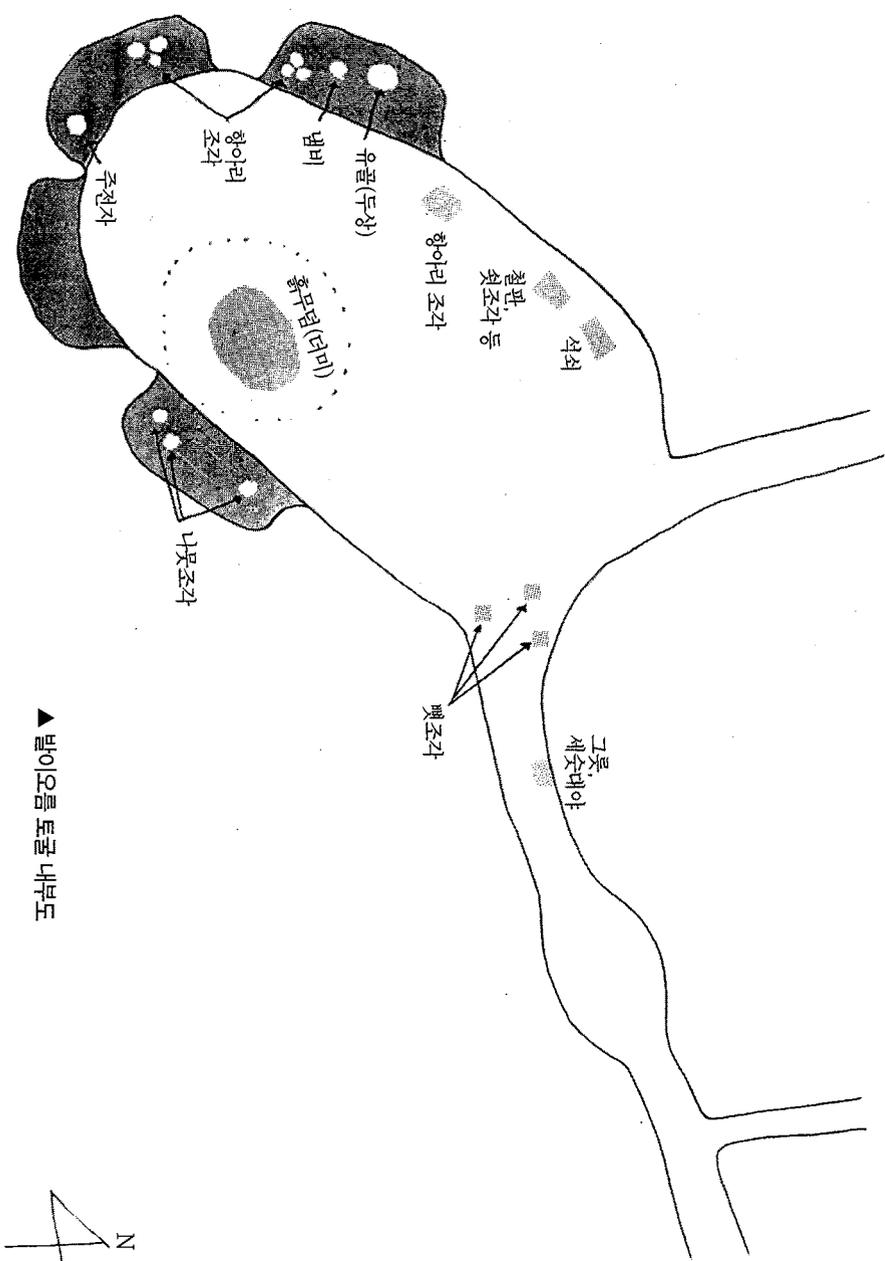
이 날의 사건은 원동 주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아픔과 씻을 수 없는 한을 남기고 말았다. 강춘부는 군인들이 왜 사람을 그렇게 죽여야 했는지,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애태우고 있었다.

사태가 났다는 소문은 간간이 들었는데 해변 마을로 내려갈까 어쩔까 망설였지요. 그래도 우린 농사나 짓고 소나 키우고 살면서 아무런 죄 지은 일도 없는데 어쩌랴 싶어서 그냥 살았어요. 산사람들이 내려와서 양식 내놓으라고 괴롭힌 적도 없고, 산사람들 때문에 피해 받아본 적도 한 번도 없었으니까, 우리가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지요. 내가 아는 이유라면 산과 가까운 곳에 살았는 거, 그저 산에 가깝다는 것이 총에 맞아 죽은 유일한 이유였어요.

▲ 발이오름 자락의 북케초남밭 1948~94년

이 날 원동을 소개하려는 토벌대의 일부는 발이오름의 서북쪽에 있는 '북케초남밭'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을 불태우고 소개해 버린다. 원동 남쪽에 위치해 있던 북케초남밭은 참나무가 무성한 곳으로 송희지(일가 10명)와 양계생, 강군일 일가 세 가호만이 살고 있었다. 송희지는 불미(대장장이) 일을 주로 하였는데, 호미와 낫을 만들어 마을마다 돌아 다니며 장사를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원동에도 나다니고 남동쪽에 위치한 공초왓 마을과도 왕래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이날 북케초남밭에서는 양계생(양사생으로도 불렀다 함)이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 북케초남밭은 1994년 3월에 다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발이오름에 있는 한 동굴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1구가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 시신은 곧 그 신원이 밝혀졌다. 정태옥. 조천면 조천리 출신. 당시 나이 30세 가량. 이러한 사실은 1948년 11월 13일 북케초남밭이 토벌



▲밭이오름 토굴 내부도

대에 의해 소개될 당시 그 마을에 살았던 송희지(남, 85세, 서귀포시 회수동)가 확인해준 것이다.

그러면 송희지는 어떻게 해서 정태옥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 가족은 마을이 불태워져버리고 난 후 여기저기 피난생활을 해야 했어. 해안 마을로 내려가면 다 죽어버린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러다 찾아 든 것이 밭이오름에 일본군이 파 놓은 굴이었지. 그 때 우리 부모님 두 분, 우리 내외하고 딸 둘, 동생 셋 해서 아홉이 일본군이 파 놓은 일자 모양의 굴을 개조해서 살았어. 굴 입구는 안에서 파낸 흙으로 막아서 조그마하게 새로 만들고, 굴 안엔 방도 서너 개 만들었지. 정태옥인 우리가 그 굴에 간 얼마 없어서니, 그러니까 소개한 직후일 건데, 왔습시다. 저기 공초왓에 사는 남석호가 가라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았지.

그런데 굴 주변엔 토벌도 많이 왔어. 그러면 우리 나가서 여기저기 피해 다녔는데, 우리 부모님은 뒷해 음력 삼월 열넷새 날 토벌대한테 죽었어. 난 그 후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헤어져야 했는데, 남은 가족은 다시 굴에 가서 살다가 여름에 토벌대 공격을 받아 다 뿔뿔이 헤어졌다고 해. 정태옥이도 그 때 죽고……. 그 후 우리 가족은 나하고 딸 하나, 여자 동생 하나만 살아남았어.

난 1953년 봄에 귀순해서 내려오자 지로인(토벌대의 길 안내자)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일년인가 이년쯤 지난 후일 거요. 경찰 하나 하고 밭이오름 토굴에 수색 갔다가 시신 하나를 봤어요. 죽은 진 오래돼도 정태옥이가 분명합니다. 형체는 알아볼 수 있었으니.

언제나 그렇듯 정태옥의 시신 발굴은 일과성 뉴스거리 이상은 되지 못했다. 당시 언론이 몇 번 그 사실을 보도했을 뿐, 곧 세인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갔다. 송희지도 시신이 발굴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을 달리했다. 정태옥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었다는 듯 그 힘

난하기만 했던 인생 역정을 증언 후 마무리한 것이다.

▲ 고향에서 유배당한 사람들

사흘 후, 살아 남은 원동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주로 하귀, 꺾지, 고내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 내려왔다. 소개 후의 생활은 고향을 등진 서러움이나 부모 잃은 슬픔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배고픔의 연속이었다. 강춘부는 당시의 생활을 담담하게 털어 놓았다.

고구마 껍데기(주로 돼지먹이로 이용되었음) 주워 먹고, 풀 뜯어 먹으며 살았대요. 어떻게 해서 보리 약간 생기면 볶아서 동생들 먹이면, 오랫동안 굶다가 물에 섞어 먹으니까 배가 갑자기 불러서 배탈이 가라 앉을 때까지 한 이삼일 가만히 드러누워 있어야 했어. 너무 배가 고파 들담 하나 넘어 갈 힘조차 없었다고. 어린 동생들 데리고 우린 참 험하게 살았어.

나는 꺾지에서 27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서울 갈 때까지 10여년을 살았는데 누구 하나 우릴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 우릴 살려줄 만한 친척도 없었고. 내가 결혼할 때도 우리 어머니가 18년 동안 덮고 잤던 헌 이불 하나 달랑 물려 받았을 뿐 신 한 짝 사준 사람도 없었어.

결혼 얘기를 하던 강춘부는 마침내 울음을 쏟아 놓는다. 그러나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그래왔듯이 곧 서러움을 가슴 속에 눌러 삼키고 말을 잇는다.

외삼촌이 지금 남편을 소개시켜주었는데 처음에 나는 싫었어. 그래도 그 사람이 동생들 다 키워 주고 학교 보내 준다고 하길래 같이 살게 된 거지. 우리 남편도 6·25 때 월남하신 분이야.

양신출 할머니(여, 88세, 한림리)는 당시의 생활은 죽지 못해 사는 삶

이었다고 회상했다.

소개 후에 내려 와 살 때 배급 준다고 해서 가면 안줍니다. 세력있는 사람이 나 행세하는 사람들만 배급도 타 먹고 우린 맨날 굶으면서 살았지. 소나 먹을 질경이, 물룻, 옷게기(자운영), 콩쿨(콩잎)같은 것들을 장에 담궜다가 배고픈 김에 먹다 보면 막 속이 쓰러. 그 때 부두에 가서 맥주보리겨를 살 수 있었어요. 그 때 돈 20전이면 몇 해나 묵었는지 좀벌레가 드랑드랑한 보리겨를 두 가마니 살 수가 있었지.

20전이면 차를 탈 수가 있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 거 두 가마니를 멜빵으로 져서 시에서 광지까지 걸어 왔지. 발이 다 부르트고 죽을 지경이야. 말뚱을 신에 담아서 신어 보거나 소금을 담아 신으라고 누가 얘기해주길래, 나도 참 어리석었지. 소금을 담아 신으니까 발이 견뎌내나?

집에 오면 멜빵을 벗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버렸지. 친정 어머니하고 딸이 겨우 끌어가다가 방에 옮겨다 놓았어. 한 번은 어머니가 불을 때라고 해.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어머니가 무얼 해주려나가 좋아서 불을 때는데, 물이 다 끓으니까 불을 끄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왜 불을 끄냐?' 고 물으니까 어머니 하는 말이 '저 집은 불 꺼져버렸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끼니 때가 되면 물이라도 내는 척 해서 남들 보기에 굶지 않고 밥이라도 해먹는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하시는 거라. 죽지 않고 사는 삶이 오죽이나 했을까. 원에서 내려 와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지. 자기 발이 있나, 자기 집이 있나, 아무 것도 없어서 남의 집을 겨우 빌어 살았지.

유족들의 한스런 삶

▲ 장병기

장병기 할머니는 남편 강창수와 함께 학살 현장에서 총에 맞았으나 남

편은 죽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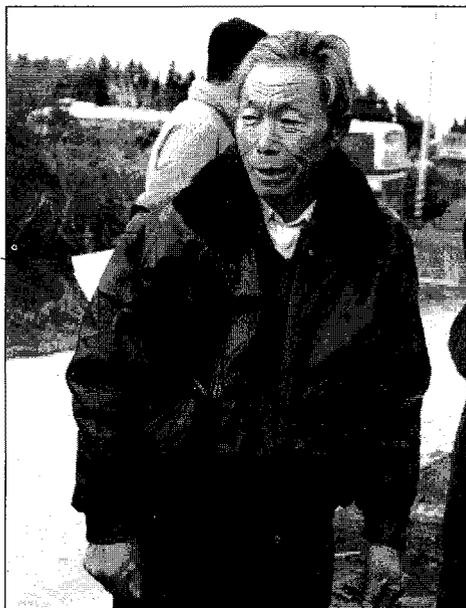
난 그때 총알이 겨드랑이로 들어가 젖가슴으로 나왔어요. 정신을 차려 보니 아기를 안은 채 죽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죽은 사람들 흘린 피로 등이 다 붙어버렸는데 그 위로 기름을 부어 불을 탁 붙이니 와닥탁 와닥탁 소리가 나면서 타. 원마을 사람이고, 옷한질로 넘어가는 사람이고간에 그 날은 눈에 뜨인 사람은 다 잡아다가 죽였어. 시체가 니것 내것을 구분 못했어요. 난 누군가가 내 팔을 확 잡아 당겨 끌어내어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바깥쪽으로 빠져나왔는데 그 날 밤새껏 사뭇 바람 부는 옷한질에 쓰러져 누워 있었죠.

이침에야 겨우 기어서 강기송 씨 집에 들어가 방에 드러누워 버렸어요. 방에 피가 하나 가득 괴었어요.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나를 그 집 할머니가 '죽으려면 나가서 죽으라'고 쫓아 내고 하는 거예요. 남편 시체를 찾아 물어야 하겠는데, 이제는 산사람들이 와서 죽여버릴까봐 무서워서 호미로 흙을 파서 감자씨 파묻듯이 흙만 대강 덮어 두고는 소 가까이(소개)해서 내려왔어요. 친정어머니가 살고 있는 수산에 갔지요. 눈만 겨우 살아 있는 나를 그래도 친정어머니와 시누이가 돌보아 주었어요. 나중에 살이 썩어들어가니까 도립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이게 그 상처죠.

장 할머니는 바지를 걷어 올려 무릎 아래 훑하게 움푹 패인 상처를 조심스럽게 보여준다. 장 할머니는 고향이 수산이고 17살에 원동으로 시집을 갔다. 당시는 한창 나이인 26세였다. 그 후 장 할머니는 팍지로 소개 내려가서 지금껏 거기 눌러 살고 있다. 그간의 한스런 삶이야 말로 다 어찌 하라만은 장 할머니는 안으로만 새겨왔던, 모래알같아 셀 수도 없는 한을 오늘 한자락 풀어보인다.

▲ 양창석

양창석은 당시 열세 살이었다. 그 날 소먹이러 갔다 돌아와보니, 어디



◀ 양창석씨.

숨어 있다 왔다고 불문곡직하고 손을 앞으로 묶고 사람들이 끌려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뭐 어릴 때였으니 기관총인지 칼빈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그대로 막 쏘아버리니…… 마을 사람들과 같이 총살당했는데, 깨어나서 보니 뒷날 아침입니다. 난 팔팔 옆집으로 기어가서 할오방한테 물을 달라고 해서 한 사발 얻어먹었지요. 그때 난 여기 맞아서 다리가 부러져버리고, 뭐 지금도 잘 쓰지 못합니다만, 그 때 볼도 붙여버리니 웃은 다 타고……, 머리에도 다 붙이 붙고. 여기 오른쪽 어깨도 총 맞고, 등을 보면 볼 붙어난 데가 많수다. 또 이 무릎도 붙이 붙고, 손도 붙고.

양창석의 그 후의 삶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었다. 신체적인 상흔에 덧칠해진 정신적 충격은 이제 그의 삶만을 불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양창석의 딸은 온 집안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아버지의 발작에 대해 눈을 글썽이며 다음과 같이 털어 놓는다.

내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일하러 가거나, 양식을 가지러 다른 마을에 갔다 올 때는 부모님과 같이 제가 마차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이나 한 잔 마시고 오게 되면, 한참 가다 그러합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면 어머니와 나는 조용히 있지요. 그럼 아버지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소나무밭을 가리키며, 저기 군인들이 총 메고 나를 죽이러 온다, 합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안 보이죠. 그래도 아버지는 뭐가 보인다, 하면서 돌맹이를 줍지요. 그러면서 우리보고도 주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있으면 이젠 그러합니다. 안 주으면 저 군인들이 날 죽인다. 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 군인을 죽여야 한다고. 그럼 우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술 마신 기분을 맞춰드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기분을 맞춰드리다보면, 아 이렇게 숨어서 탁 잡는 건 어머니네, 어머니를 잡아서 막 두들겨깁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찌시겠어요. 막 소리를 지르죠. 한참 후 아버지진 눈을 떠서 두리번거리며, 군인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우린 그건 군인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한참을 설명해도, 아버지진 분명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다 아버지진 연세도 들고 해서 그런 일은 없어졌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기 군인이 온다고 해서 잡은 건 어머니고, 어머니는 본의 아니게 참 많이 맞으면서 살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버지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들어오다 캄캄한 곳에만 가면 그게 다 군인입니다. 저 소나무도 군인이고, 전봇대도 군인이고, 집안에 있는 가구도 다 군인입니다.

어릴 땐 저도 잘 몰랐죠. 그러다 나이가 들어 그 이유도 알았는데……. 그때 아버지를 치료라도 받게 해드렸다면 그런 분이 안 되었을텐데,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양창석은 그 날 부모와 누이 둘을 잃은 후 남의 머슴살이도 하며 모진

세월을 살아왔다. 부인과 딸도 산에 가서 약초를 캐다 오일장에 내다 파는 피나는 삶을 이어 왔다. 마을터에서 굿이 있던 날, 옷자락을 들치며 온갖 흉터를 다 보여주던 양창석은 환갑도 채 넘기지 못하고 몇 년 전 한때는 이 세상을 영원히 뒤로 하고 말았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온갖 설움을 당당하게 한 자락 펼쳐보이지도 못하고.

▲ 양병생

고내리로 양병생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는 지난 1월 중순이었다. 양할머니네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서자 필자를 맞은 사람은 할머니의 딸이었다. 사건 당시 여섯 살이었다는 딸은 이제 56세의 초로의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낯선 사람이 와서 양 할머니를 찾고 또 원마을 이야기를 들으려 한다는 걸 알아 금방 꺼리는 표정을 했다. 빨리 갔으면 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앓아 누워서 사람을 만나 볼 수 없다고 했다.

4·3에 대한 피해 의식과 최근의 땅찾기 소송 과정에서 당한 여러가지 괴로움 때문이었다. 아주머니는 다음에 보겠지만 소송 과정에서 경찰이 찾아오고 해서, 이젠 외부인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고내에 뿌리 내려 그럭저럭 먹고 살만 한데 억울하기는 하지만 더는 원동 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다.

아래 글은 아주머니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한 것이다.

원래 우리는 일본에서 살았다. 1948년 4·3이 일어나던 해에 일본에서 부모님과 함께 원동으로 이사해 왔다. 할아버지는 부자였는데 일본에서 돌아가셨다. 당시 우리는 새로 집을 짓고 있었다. 냇가를 건너면 할머니네 집에 갈 수 있었는데도 당시 6살이었던 나는 냇가의 개구리 울음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할머니 집에도 못 가는 겁보였다.

그날 토벌대가 와서 지붕에 총을 걸어 놓고 사람들을 죽여버렸다. 당시 할

머니와 나와 동생은 토벌대가 집으로 가라고 해서 할머니 집에 가 있었다.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일본에서 온 지 얼마 안돼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토벌대가 나를 귀여워해 주며 옆에 데리고 있으려고 한 것을 싫다고 뿌리쳐 도망쳤던 사실이다.

그날 김기홍, 김길홍, 김승홍(양병생의 시아버지)이 죽고, 아버지 김유홍도 돌아 가셨다. 어머니도 당시 얼굴에서부터 머리까지 총알이 스쳤으나 다행히도 살아나셨다. 어머니는 시아주버니 시체를 호미로 땅을 파서 그냥 묻어버렸다. 지금도 당시 그대로 있다.

어머니 친척이 고내에 있어 우리는 고내로 소개를 내려 왔다. 우리 식구만 고내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고내에서의 생활은 비참했다. 그 때는 제주 사람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삭 주으러 다니기도 하면서 살았다. 어머니는 남의 밭에 김을 매러 다니고 남의 땀감을 해주고 하면서 우리를 키우고 살았다.

전두환 시절에 땅찾기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증인으로 경찰인지 검찰인지 불려가 압력을 받고 해서, 이제 식구들은 원마을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은 원마을의 우리 땅을 팔아먹은 사람이 죽어버려서 다시 땅을 찾으려고 해도 복잡하고 해서 땅찾기를 포기한 상태이다.

땅찾기

▲ 첫소송 — 소길리 산 246, 247, 248번지의 임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져버릴 뻔했던 원동은 사건 발생 40여 년만인 1980년 대 후반에 부활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장년이 된 유족들이 조상의 땅을 찾아 나선 것이다. 유족들은 4·3 때까지만 해도 우리 땅이었던 원동 지역이 부모 친척이 죽고 없자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바뀌어버렸다면 땅찾기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도 주막이 있었던 원동 중심터에서 남쪽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조

금만 걸어 올라가면 자그마한 냇가가 보인다. 이 냇가를 끼고 다시 10여 분 가량 가노라면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숲 가운데로 무너진 돌담들이 무심하게 흩어져 있는 마을터가 언뜻언뜻 보인다.

이 마을터 위쪽 수풀이 무성한 ‘머흘곶’이 바로 ‘원자왈’이라고 불러 지던 원동의 마을목장터이다. 이곳은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소길리 산 246, 247, 248 번지의 임야로 소유자는 신용원 씨(애월읍 광지리)로 되어 있었다. 신씨가 소유권 보존을 한 시기는 1971년 12월 17일이었다. 그런데 신씨는 이 땅 3필지를 1987년 12월 28일자로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의 2인에게 매도한 상태였다.

1985년에 유족들 중 원자왈이 원래 자신들 조상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은 당시 학살된 강기송의 아들 강웅필이었다. 그는 고향에서는 살기 힘들어 시집가서 서울에 살고 있는 누님(강춘부) 집에 얹혀 살다, 결혼하고 나서 제주에 내려와 정착했다. 그는 어느날 집안 어른들과 제사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원동에 부모님 명의의 땅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얼핏 들게 되었다.

1989년 9월에 강찬익, 장희봉 등 9명의 유족은 원자왈 일대 14만여 평의 임야에 대해 신용원(애월읍 광지리)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이 소송에 관련된 사람은 모두 1948년 11월 13일 집단 학살 당시에 부모님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그 후손이었다.

부모님을 빼긴 것도 서럽고 기가 막힌데 땅까지 이룬다는 건 정부에서도 좀 너무……. 이 동네는 어른들이 하나도 없이 썩 다 죽어버렸으니까, 우리들 나이의 어린 아이만 남았어요. 어른들은 다 죽어버리고 아이들만 남았으니 다 빼앗아간 거지요.
(고 강기송의 딸 강춘부)

원자왈 공동목장은 14만 평이나 된다. 이 땅의 등기부상의 원 소유자는 9명 — 이 숫자는 확인이 필요하다. 원래 246번지 땅은 양재원 외 4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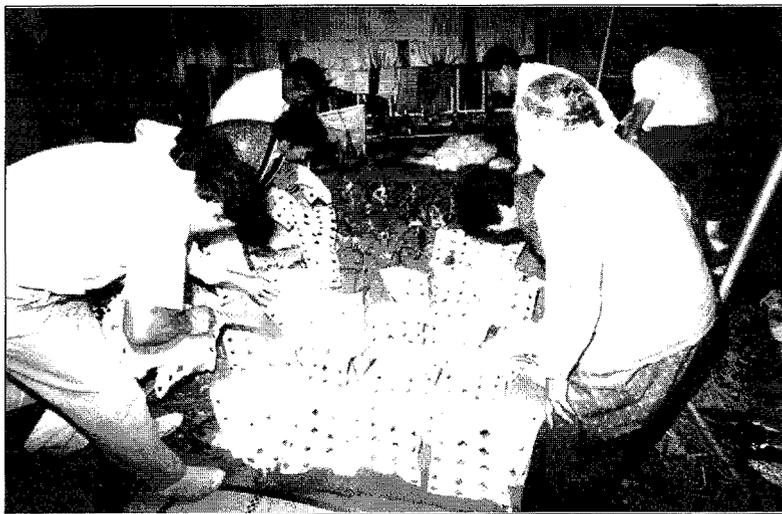
247번지 땅은 김재반, 248번지 땅은 허훈 외 6인의 소유로 1933년 이후 1971년까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었다. 247번지 땅은 이 소송과는 관계가 없었으니 김재반은 빼고, 246번지와 248번지 소유주 중 중복되는 사람을 빼고 해서 9인이 된 걸로 추정된다 — 이었다.

신용원은 이 땅을 매입할 때 이곳이 33인으로 구성된 마을 공동목장이 라고 주장하면서 전체 토지를 33으로 나누어 해당자나 그 후손에게 1/33 지분만큼씩에 해당하는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돈은 대략 사람에 따라 250~1,250원 정도였다. 신용원은 그런 다음 매매영수증에 도장을 찍게 하였다.

원동 유족들은 신용원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신용원은 1960년 12월에 애월면 제2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1,100표를 얻어 당선된 후 면의원을 지냈고, 땅을 매입하는 시기인 1967~70년에는 애월리 이장을 3년간 했었던 지역 유지였다. 이런 경력의 신용원이 면의원을 지낼 당시 원동에 올라가 살면서 원 소유자나 그 후손이 학살 과정에서 죽거나 대가 끊겨서 땅 임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 매매증서를 만들어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 유족들의 소송의 근거였다.

4·3 이후 원동은 50년대 말까지 군부대의 관리 하에 들어가 민간인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다. 마을은 잠초만 무성히 자라는 황무지로 변했다. 신용원은 1960년대 초 이 마을에 민간인 출입이 허용되자, 1962년에 정부로부터 나무를 무상으로 용자받아 대규모 조림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굶기를 밥먹듯 하던 원동 유족들은 보리쌀 석 되라도 받기 위해 자신의 땅 인지도차 모른 채 그 땅에 가서 나무를 심는 품일을 했다고 한다.

신용원이는 면의원할 적에 원에 올라가서 집지어 살면서 부자가 됐지요. 우린 우리가 살았던 원에 돌아가려고 해도 못 올라갔는데……. 사대 때 행세를 했던 모양인지 정부에서 용자받아 나무를 심을 때, 원 사람들은 샅이나 받아 먹어보려고 거기 올라가서 나무를 심었어요. 내 밭인데도 내 밭인 줄을 몰랐



▲ 저승돈.

지요. 아들, 딸 모두 데리고 가서 하루 심으면 보리쌀 석 되씩 줍니다.

(장병기)

신용원은 대규모 조립사업을 통해 원동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획득하고 난 후, 1969년 5월 21일에 공포된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고스란히 불하를 받았다. 그런 다음 신용원은 이 땅을 다시 1987년 12월에 서울 사람 김문택외 2명에게 팔아 엄청난 투기이익까지 챙겼다 한다.

그럼 신용원으로 하여금 원자알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던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무엇인가. 1969년 6월 11일자 「제주신문」에 그 개략적인 내용이 실려 있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임야로서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법적 양도된 것 중에 어느 한 쪽이 사망 등으로 인하여 취득자가 소유권 등기를 못하고 있

는 것은 이 법이 공포된 6월 21일 후 50일이 경과하여 시장, 군수의 확인서를 발부받으면 간략한 방법으로 취득자에게 이전登記된다. 본도에서는 임야 총 면적 11만 ha의 1/3이 넘는 4만 ha 내외가 이전登記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신용원이 이 법을 이용하여 거짓 매매증서를 만들어 원자알 땅을 차지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서로의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 1991년 제주지법은 1심 판결을 내렸다. 1심인 제주지법 민사합의부는 1991년 소송 대상 전체 임야 중 신용원이 차후 대금을 지급하여 매매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과, 실제로 연고권자로부터 매입한 부분, 또 연고권자 중 소송을 포기한 부분을 제외한 5만 평에 대해서는 강찬익 등 10명에게 되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신용원 등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에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그러나 광주고법 항소부는 1993년 10월 6일 애월읍 광지리 신용원 등 3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소유권등기 말소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항소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법 재판부는 이 날, "신용원이 이들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광주 고법은 결심 공판 전인 1992년 11월 7일에 원동에서 이례적으로 이동법정(재판장 김완기 부장 판사)을 열어 현장 검증을 하고, 관련자의 증언을 듣는 등 재판에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그후 피고들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1994년 3월 말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항소심과는 다소 달랐다. 대법원 민사 3부(주심 朴萬浩 대법관)는 이 날, 5만평 중 2만 1천 5백 평은 신용원이 1960년 대에 조림을 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20년간의 취득 시효 기간을 적용하여 광주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5만 평 중 절반 정도인 2만 8천여 평에 대

해서만 원고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 소유자인 신용원이 1960년 대에 이곳에 조림을 함으로써 20년간의 취득 시효에 따른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 재판은 제주지법·광주고법·대법원을 거치는 동안 수십 명의 증인이 동원되는가 하면 관공서 창고에 쌓여 있던 케케묵은 관리대장이 증거로 동원되기도 했다. 그리고 소송에 관련된 원고나 피고, 증인들 사이에서 서로 위증했다거나 위증을 교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함으로써 형사 사건으로까지 비화돼 피고 신용원은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음)되기도 했다.

이러한 재판 과정에 흥미를 갖고 지켜보던 제주인들 중 일부는 원고들이 괜히 제2의 4·3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비판도 했었다. 그러나 이 재판의 중요성은 재판 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유족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임이 입증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 4·3 문제의 해결은 인명 피해 못지 않게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되는 땅 문제에서도 자유스럽지 못함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4·3의 후유증을 치료하는 하나의 통과의례로 도민의 관심을 모았던 이 소송은,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복원이 가능하다는 희망감과 동시에 '시효취득'이라는 냉엄한 법의 논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4·3의 치유'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다.

▲ 송사 때마다 등장하는 사건 브로커

송사에는 반드시 사건 브로커가 있다. 원동의 소송도 어김없이 이 금언이 옳음을 입증했는데, 다른 사건과 조금 다른 것은 이 사건의 브로커가 재판에서 일부 승소한 소길리 산 248번지의 소송 당사자인 허화영(남, 55세, 서울)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248번지의 원소유주로 1971년 이전까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던

허훈의 장손이었다. 그는 해당 토지가 원래 자신의 조부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고는 신용원에게 소송 전에 자기 지분의 토지를 매도하고 돈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는 다른 원고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그는 매도증서를 써주었던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허화영에 대한 인식은 만나보았던 원동 유족 그 누구나 비슷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을 퍼부어대는 사람도 있었다. 사실 필자는 유족들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일방적으로 당할 수가 있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그럼 이 소송에서는 자신의 권리도 없었던 그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련되었는가. 강응필과 그 부인의 얘기를 들어보자.

248번지는 재판에서 이기고 246번지는 졌지. 247번지는 이 소송에 해당없었고. 허화영이가 자기도 (지분만큼) 받아내려고 했는데, 자신은 이미 받은 돈 액수가 있기 때문에 저버리니까, 이제는 자기는 빠지고 중간에서 재판을 해서 돈을 찾으면 자손들에게 얼마씩 나눠줄테니까 위임을 해달라 해가지고 브로커로 나선 거라. 위임받아 일부 이긴 허화영이는 자손들에게는 돈 얼마씩만 조금씩 나눠주고 잠적해버렸지. 소문에는 3억을 챙겨 도망쳤다고도 하고 …… 246번지는 (원고들이) 돈을 다 받은 걸로 되어 있어서 패소당하고, 248번지는 두 사람인가 세 사람 명의로 승소했죠. 그 중 한 사람이 이두익 외손주인 장희봉이고, 또 한 사람은 김경윤일 거라. 허화영이는 승소한 2만 8천 평을 복덕방을 통해서 팔아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2,500만원도 주고, 좀 많게는 5,000만원도 주고 한 나머지 돈은 자기가 다 챙긴거라. (강응필 부인)

허화영이를 재판에 끌어들인 248번지는 그의 할아버지인 허훈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87년도인가에 (신용원한테) 500만원을 받았습나다. 허화영이가. 그러나 다른 후손 중에는 아예 땅이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도



▲ 저승뭇.

있고, 돈을 안 받은 사람도 있어서 허화영이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임장을 받습니다. 이 땅을 재판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으니까 위임장을 써주시오 해서. 그러니 옛날에 팔아버린 근거가 신용원이한테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용원이) 당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소송이) 시작된 거예요. 다들 500만 원씩 받았지만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안 받은 사람들의 지분만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재판 소송을 한 거예요. 재판할 때에 이 땅을 찾게 되면 변호사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지주의 손을 70% 놓고 30%는 변호사하고 자기 하고 갖고, 그외의 경비 모든 건 자기가 대겠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승소 판결 낸 것이 3대 7로 나뉜 거예요. 70%는 허화영이가 먹고 30%는 자손들에게 나눠주고, 재판 과정 자체는 좋았는데 돈이 잘못 돌아간 거야. 우리도 우습지. 4·3사건을 빙자해서 이리저리 굶도 하고 했으니. 그것도 허화영의 사기인 줄을 모르고 사람들은 조상들을 위한 굶을 한다 하니 고마워서도 울고, 굶을 보면서도 울고불고 했으니.

나중에 재판에 이긴 땅주인들은 어떻게 된 줄 알아. 복덕방을 통해서 다 팔았으니 양도세가 나올 거 아니라. 땅값으로 받은 돈의 절반은 또 세금으로 다

물어버리고 나니……. 그러니까 허화영이 좋은 일만 다 한 거예요. 후손들이 2,500만원 받았으면 1,200이 세금으로 나왔다더군. 허화영이는 돈 다 먹어버리니까 세금낼 것도 없고. (강응필)

강응필의 얘기처럼 소송 중 원동 옛터에서는 4·3 당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조상의 원혼을 위무하는 굿판이 열렸다. 굿을 위해 모인 유족들은 그 동안 조상들을 위해 자신들은 굿 한번 못해드리고 무엇을 했나 하는 회한에 눈물을 쏟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 신성했던 굿판마저 브로커 허화영의 농간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얼마나 4·3에 대한 국가적 후속 처리가 미흡했으면 이러한 사기극까지 발생했을까.

▲ 상가리 산 110 번지에 대한 소송

1985년 5월 2일 고 강응보는 애월리 박운각과 조승무를 상대로 상가리 산 110번지 임야(그후 1985년 4월에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동은 애월면 소길리와 상가리에 걸쳐 15가구 정도가 살던 작은 마을로 속칭 원동마을로 불린다. 1948년 4·3사건 당시 원동마을에 반란자들이 출몰한다고 군경합동 수사대가 출동하여 주민을 몰살시키고 가옥을 불태웠다.

이후 18년 동안 원동마을은 군부대의 관리하에 들어가 민간인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다. 마을은 황폐화되고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있다가 1960년대 이후 민간인 출입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본건 애월읍 상가리 산 110번지 임야(220,066㎡)는 일제시대 때부터 강양호, 김재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임야로써 4·3사건 이후 후손들이 타관으로 헤어져 일시적으로 방치된 땅이다. 따라서 이 땅이 애월리 마을 공동목장으로 사용된 적도 없었으며, 애월리

에서 8~10km 떨어져 있어 소를 방목하기에는 어려운 먼 거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애월리 주민들이 사용하던 리민용 공동목장이 애월쪽에 가까운데 '어름비' (어음)라는 곳에 따로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애월리 사람들이 남의 마을목장을 사용할 필요도 없었다. 당시는 각 리마다 리민용 마을 공동목장을 따로 갖고 있었다. 또한 원동마을 공동목장인 속칭 '괘중이왓'은 산 110번지가 아니라 산 120번지 임야였기 때문에 산 110번지 임야를 애월리민들이 매수할 이유도 없었고 매수한 사실도 허위일 뿐이다.

당시 원동마을 공동목장 조합원으로 올라가 있는 23인(김성현, 강공팔, 강문준, 강공석, 양운용, 김귀영, 강창수, 강기송, 김유홍, 강계송, 강경출, 양이룡, 이두일, 변덕순, 박운갑, 안홍련, 장재권, 김승호, 문재평, 강문주, 김종업, 김평야, 김후선)의 명단도 허위라는 것이 드러나는 데, 당시 가호수가 15가구였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가구수가 15인 이상이 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또한 조합원이라고 되어 있는 23인 중에서 4·3 당시 원동에 거주한 사람은 김성현, 강공팔, 강문준, 강공석, 양운용, 김귀영, 강창수, 강기송, 김유홍, 강기송, 강경출, 양이룡, 이두일 등 13명뿐이고 나머지 10인은 원동마을에 살았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인 박운각과 조승무의 증언은 서로가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 박운각의 증언은 산 110번지를 1958년도부터 애월리민들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승무의 증언에서는 일제 시대부터 애월리민들이 산 110번지 임야를 목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임야 매수 여부나 매수 시기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박운각의 증언에 의하면 1958년 당시 애월리장이었던 김예현이 애월리 마을 발전을 위해 애월리 마을공동목장조합을 만들어 원동마을 공동목장 조합원 23인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여 애월리 마을 공동목장도 관리·운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1958년은 군의 통제로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에서 합법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958년도 때도 당시에 영수증에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 현재

살아 있는 양창석의 증언에 의하면 영수증 작성이나 날인을 해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영수증이 허위로 꾸며져 있음이 분명하다. 허위 영수증임을 입증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전서출'로 날인되어 있는 영수증이다. 전서출은 당시 나이 90세인 양운용의 어머니인 김서출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양운용의 장남인 양창석이 충분히 성장해 있던 시기여서 늙은 할머니로부터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볼 때 허위 영수증임이 분명하다. 현재 생존해 있는 김영, 강봉현, 강기송 등은 영수증 작성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당시 원동마을에 거주한 가구주로서 조합원 명단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강봉권, 고명학, 고우길, 이영갑, 장명관, 양창석, 김재현(김귀영 부친) 등으로 만일 마을공동목장 조합원이 구성되었다면 이들이 명단에서 빠질 리가 없다.

따라서 위의 토지매입 사건은 4·3사건 때 원동마을 거주자였던 15가호 60여명 중 집단학살에 의해 노인과 어린아이들 30여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몰살당하고 집들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지게 되자 해방 전에 원동에 올라와 2년 가량 거주한 적이 있던 박운각이 이러한 사실들을 이용하여 산 110번지를 뺏을 목적으로 신용원과 짜고 23명의 조합원 명단과 영수증을 위조·작성한 것이다.

강응보는 강양호의 장손으로 학살 당시 부모(부친 고 강기송)를 모두 잃고 다섯 누이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다. 처음으로 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강응보의 둘째 동생 강응필에 의해서였다.

그럼 강응필과 부인의 주장을 들어보자.

• 강응필 : 상가리 산 110번지는 우리 종손이 말하는데 원래 원동목장이라고 했다 그래요. 원 소유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하고 김재반이었습니다. 양병생이라고 김재반의 며느리가 고내리에 생존해 계시지 모르겠네요. 애월에 (애월공동목장을 상대로) 요거는 우리가 찾으려고 했더니요. 김재반 하고 두 사람의 이름으로 뒀잖아요. 법적으로는. 우리 형님이 재판을

하겠다고 해서 김재반의 며느리, 딸, 사위 위임장을 받아가지고서 소송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지 강공팔이 중손이 되어서 소송을 하려고 해서, 애월에 가서 이 땅을 이전해 가졌소 하고 물었더니 매도인 명단을 내놓습시다. 진짜 영수증이든 가짜 영수증이든 영수증을 내놓더라고요. 23명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서류를 봤더니 완전히 허위예요. 실제로 그런 지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갔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강기송이신데요, 신용원에게 돈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올라가 있어요. 1/23이던가 해서 3천 평 값을. 우리도 그 땐 이상했죠. 왜 신이장이 돈을 내주는지. 아마 그 당시 신이장은 애월리 사람들과 땅을 바꾸려고 해서 대리인 노릇으로 돈도 내주고, 서류가 필요하니 도장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 내막은. 어쨌든 우리 형님(강응보)이 아버님 뚝은 내놔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신이장에게 1/23 지분만큼 돈을 받고 그 때 해결을 봤어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형님은 자기 지분을 받아 놓고 또 다시 소송을 하게 된 꼴이 된 거예요. 일단 자기 지분을 받으면 권이 없지. 허위문서라도 재판에선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졌죠. 자기 지분은 받아 놓고서 전체를 찾으려 하니까 안되는 거예요. 자기 지분을 안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소송을 안 하려고 해요. 강춘경(곽지리)이가 찾아 먹으면 되는데 안 해요. 민사소송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 부인 : 고내에 양병생 할머니가 계신데 이전 안 찾으려고 합니다. 4·3 당시에도 그렇고, 전에 재판 때도 하도 경찰들한테 시달렸는지 아예 얘기 꺼내는 것조차 싫어하십니다. 아예 땅 애긴 꺼내지 말라며.

• 강응필 : 그 할머니도 안 찾으려 해. 이걸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해야지. 원래가 애월에서 엉터리 형식적인 서류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공동목장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들이 공동목장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명단을 만들어냈더라고. 그 (매매했다는) 서류 자체가 엉터리이지만 법적으로

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 부인 :애월 사람도 몇 사람 올려 놓고 그렇게 해놨어.

4·3으로 인한 원동의 토지 소유권 분쟁은 단지 위의 몇 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증언 중간중간에 문제가 된 그의 여러 필지의 땅을 증언자들은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필자는 그 모두를 정리할 수가 없었다. 조사하기에 애매한 건도 있었고, 어떤 건은 가까운 인척들간에 문제가 된 것도 있어서 더 이상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글 자체가 4·3으로 인해 파생된 토지소유 분쟁 중 중요한 몇 가지 사건 — 다시 말해 4·3으로 조상들은 억울하게 돌아가고, 그 유족들은 자신들의 땅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사이에 고향땅은 남의 손에 넘어가버린, 말 그대로 4·3이 초래한 전형적인 토지 소유권 분쟁 — 을 최초로 제시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머지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한 분쟁도 이 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 사례와 비교해 가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 자체가 바로 4·3의 상흔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마을을 복원시키는 한 방편이 될 것이기에.

▲ 제2의 소송 — 소길리 산 246, 248번지의 임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진 다음해인 1995년, 소길리 산 246, 248번지 땅을 둘러싼 제2의 소송이 벌어졌다. 첫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영등 주민 5명이 똑 같은 사안으로 신용원 등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 없어 "당시 민법상 상속권을 갖는 장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법 논리에 의해 좌절을 맛 봐야 했다. 1996년 말까지 2심에 걸쳐 진행된 이 소송에서 유족들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하였다.

이 제2 소송의 결과는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법대로' 라는

말도 있지만 법정이야 법대로 판정하는 게 옳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법대로'가 과연 옳다고만 주장할 수 있을까. 장남의 후손까지 4·3 시 멸족됐다면, 그래서 그 땅이 브로커의 손에 넘어갔다면. 이런 경우 민법은 브로커의 손에 유족의 땅을 무방비로 내맡기는 꼴이 아닌가. 앞에서 강응필이 이런 토지 분쟁에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했던 말이 새삼 실감된다.

▲ 전문대학 부지로, 관광지로 변모하는 원동

1995년 10월 그 동안 문제가 됐던 소길리 산246·247·248번지 일대 임야는 모두 학교법인 한라학원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학원 측은 2천년대를 겨냥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한라전문대학을 이곳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미 조감도까지 마련한 학원 측은 곧 관계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 토목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토벌대의 집단 방화와 학살로 왜 죽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어간 수십 명 주민들의 한이 맺힌 이 땅은 이제 학문의 전당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원동의 서넉켠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관광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시공자로 선정된 (주)원광개발은 이 지역(애월읍 소길리 산 155-61 번지 등 35필지 19만4천 평)이 서부산업도로 상의 교통 요지라는 점을 살려서 2001년까지 교양·문화 및 체육 시설을 겸비한 대단위 레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 한다.

원동 옛터는 오늘도, 50년 전에 주민들에 대한 처참한 학살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때문에 해안마을로 흩어진 아녀자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겪었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남녘에 우뚝 솟은 발이오름을 마주 하고 무심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평화스럽던 마을은 질푸른 대나무 숲과 뺨뺨이 자란 삼나무로 뒤덮인 채 지금은 '원지' 표식만이 이곳이 마을터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월 하늬바람 속에 마을의 옛 모습을 찍기 위해 현장을 찾은 필자

에게, 원자왈의 갈대는 온몸을 비벼대며 호소하고 있었다. 이제 이곳에 드나들 학생들이며 관광객들에게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우리의 아픔을 사실대로 알려달라.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아픔이 후세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 희생자 명단

1948년 11월 13일, 원동에서 학살당한 사람은 50~60명 된다고 한다. 그 중 원동 사람은 다음과 같다. (나이는 당시 나이임)

강공부(남, 20세)	김기홍(김유홍의 동생)
강기송(강응필의 부친, 40대)	김길홍(김유홍의 동생)
강창수(장병기의 남편, 31세)	양이룡(양창석의 부친, 50대)
강창권(강창수의 동생, 29세)	양춘생(양이룡의 딸, 18세)
강창욱(강창수의 동생, 28세)	양춘희(여, 21세)
강창욱의 부인(25세)	양운용(29세)
강창욱의 아들(4세)	양정생(양운용의 딸)
고남옥(여, 16세)	이무생(양이룡의 부인)
고남규(고병규의 아들, 5세)	이두익(남, 64세)
고병규(고남보의 부친, 43세)	이달호(이두일의 딸, 36세)
고임생(강공팔의 부인, 28세, 임신 중이었음)	임세옥(남)
고태원(남, 21세)	장봉호(장병기의 여동생, 19세)
김귀환(남, 28세)	허 홍(강기송의 부인, 40대)
김귀휴(남, 21세)	현두병(남, 50세)
김성만(양운용의 부인, 29세)	현봉완(남, 14세)
김승홍(양병생의 시아버지)	현창하(남, 20세)
김유홍(양병생의 남편)	홍성규(남, 22세)

